

## ■ 연구원 소식

### ○ 제 52차 시민문화강좌 안내(10월 26일)

제 목 : “전북지역 친일부역의 기억과 흔적”  
강 사 :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  
장 소 :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1호  
일 시 : 2019년 10월 26일(토) 16시부터  
대 상 : 회원 및 시민  
수강료 : 무료

52회 문화강좌는 전북지역 곳곳에 산재한 친일 부역의 기억과 흔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5년의 일제강점기 동안 전북지역에서는 피맺힌 항일운동 뿐 아니라 일제의 편에 섰던 수많은 친일파의 기억과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전북의 도청소재지인 전주 기린봉에만 가도 동학농민혁명 당시 진압군으로 앞장섰고 을미사변 당시에 우범선, 이진호 등과 함께 일본 낭인과 함께 했던 훈련대 대장 이두황의 묘가 버젓하게 서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위해 불철주야 분투하는 민족문제연구소 김재호 지부장을 모시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북지역 친일부역의 기억과 흔적”을 주제로 우리지역에 산재한 친일파의 기억과 흔적을 찾아보는 시간을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제52회 문화강좌에서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 청교도와 하버드 대학교

김천식(문학박사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전임 연구원)



하버드 대학 건물 하얀 건물 중앙에 까맣게 보이는 것이 설립자 하버드 동상이다. 주위 학교 건물들이 대학의 기품을 나타낸다.

영국에서 영국 왕과 국교와의 갈등으로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모험을 강행하였다. 그들은 미지의 신대륙에서 자신들의 뜻을 펴보기로 결단을 내리고 1620년 9월 8일에 영국 플리머스 항구를 떠나 신대륙으로 향하는 항해를 시작하였다. 63일 동안 험난한 대서양의 풍랑과 싸우는 동안 질병과 기근으로 102명 중 50명 만 살아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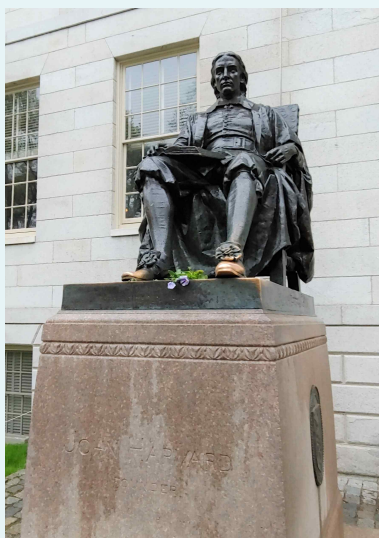
청교도들은 지금의 매사추세츠 연안 케이프 코드에 우선 상륙하였다. 원래는 더 남쪽인 버지니아까지 갈 계획이었지만 더 이상 항해가 불가능하여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그들은 케이프 코드에 잠시 머물다가 12월 초순에 플리머스로 가서 그들이 마지막 항구의 이름을 따서 플리머스라 명명하고 정착하였다. 청교도들은 낮 설은 이국땅의 혹한 속에서 추위에 떨어야했고 배고픔과 질병의 고통을 감내(堪耐)하며 또한 인디언들의 습격에 긴장하면서 정착촌을 만들어 갔다. 새로운 정착촌 건설에 전념하면서 미래를 위한 계획도 세우는데, 그것은 학교 설립이었다.

하버드대학교는 청교도들에 의해 미국에서 설립된 최초의 대학으로 1636년에 설립되었다. 하버드라는 대학 명칭은 수 백 권의 장서 및 재산을 기증한 청교도 목사인 존 하버드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따서 "하버드대학"이라 하였다. 설립 목적은 청교도 정신을 계승 시키고자하는 것과 성직자 양성이었다.

청교도 정신으로 설립된 하버드대학교는 세계대학순위에서 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대학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세계제일의 대학답게 세계적으로 내 노라 하는 인물들을 배출하였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존 F. 케네디,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등 미국 대통령이 7명이나 된다. 뿐만 아니라 작가 T.S. 엘리엇, 배우 매트 데이먼,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 빌 게이츠, 초절주의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등도 하버드 대학이 배출한 인물들이다.

또한 우리나라 초대 이승만 대통령, 반기문 UN사무총장, 서울대학교 백낙청 명예교수, 철학자 김용옥 등도 하버드대학교 출신이다. 이것만 보아도 청교도들이 일찍이 교육의 중요성을 간파(看破)하였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버드대학을 설립한 그들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



하버드 목사 동상



하버드 대학 정문, 명성에 비해 소박한 정문이다

## 조선총독부 청사 건립(1926년 10월 1일)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乙巳勒約)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앗아간 일제는 이듬해 2월 통감부를 설치하고 이토 히로부미를 초대 통감으로 임명했다. 통감부는 일본 외무성에서 독립된 천황의 직속기관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물론, 정부 각 부서에 다수의 일본인을 고용해 한국의 내정을 완전히 장악했다.

일제는 1910년 5월 30일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를 한국통감으로 겸임시키고 한일병탄(韓日併呑) 작업을 진행했다. 그해 7월 23일 한국에 도착한 데라우치는 8월 22일 이완용(李完用)과 한일병탄조약을 체결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30일 조선총독부 및 소속 관서의 관제를 공포하고 데라우치를 초대 총독으로 임명했다. 조선총독부의 기능은 10월 1일부터 가동되기 시작했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남산 왜성대의 일본 공사관을 주 청사로 사용하며 용산구에 자리했던 통감부 건물을 별도로 운영했다. 그러나 직원 수의 증가와 각종 기관의 통괄로 인한 사무량의 확대로 1910~11년에 증축을 거쳤으나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한 상황이라 결국 넓은 청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신청사의 부지로는 행정적으로 편리한 장소를 채택한다는 구실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한국인의 민족적, 역사적, 문화적 심리를 압도할 수 있는 곳을 물색했다. 처음에는 현재의 서울시청 자리 등이 부지로 꼽혔었지만 당시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결국 경복궁으로 위치가 정해졌다. 1912년에 경복궁에 조선총독부 청사 건립이 본격화되면서 흥례문과 주위의 행각, 영제교 등이 철거되기 시작한다. 1914년에는 이듬해에 조선물산공진회를 경복궁에서 개최한다는 핑계로 경복궁의 중요 전각 몇 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전각들이 헐어버렸다.

1912년 독일인 건축가 게오르그 데 라란데가 설계에 착수했으나 1914년 기초 설계만 남기고 사망한 후 일본인 건축가 노무라 이치로, 구니에다 히로시 등이 설계를 완성했다. 건물은 르네상스 양식에 바로크 양식을 절충한 네오 르네상스 양식으로 설계되었다. 조선에서 3번째로 9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으며, 당시에는 최신 기법이었던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했다. 철근은 일본 키타큐슈와 오사카에서 공수해왔다.

외벽 표면은 서울의 창신동 채석장에서 캔 화강암을 썼고, 대리석은 황해도 금천, 평양, 원산에서 모래와 자갈은 한강에서 구했다. 시멘트는 일본 오노다시멘트 제품을 썼으며 장식철물, 문철물, 가구, 공예품 등은 미국과 유럽에서 수입해왔다. 당대엔 유래를 찾기 어려운 호화판 건물이라 할 수 있었다.

1916년 6월 26일 지진제(地鎮祭)를 거행한 후 시작된 공사는 처음에는 5년의 시간과 300만엔의 비용이 예상되었지만 이보다 훨씬 긴 기간과 공사비가 필요했다. 결국 1926년에 완성되어 10년이 걸렸고 돈은 675만 1,982엔이 소요되었다. 예산과 시간이 예상보다 2배씩 들어간 것이다.

경복궁의 입구 역할을 하던 광화문은 조선총독부 건물 완공과 때를 같이 해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당초 광화문을 헐어버리려했던 일제는 민인들의 반대가 거세자 경복궁 동쪽문인 건춘문의 북쪽으로 광화문을 옮겼다.

광화문을 옮긴 후 그 자리를 '총독부 광장'이라 부르면서 각종 옥외 행사를 진행했다. 해방 이후에도 이 곳은 1968년 광화문이 복원될 때까지 군정청 광장, 중앙청 광장 등 이름만 달리하며 여러 관제행사의 개최 장소가 된다.

태평양 전쟁에서 패한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한 후 1945년 9월 9일에 서울에 주둔한 미합중국 육군이 총독부 청사를 미군정청 청사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에 총독부 청사의 제1회의실에서 미 육군 제24군단장 존 하지 육군 중장과 조선총독 아베 일본 육군 대장의 항복 문서 서명식이 있었다.

이후 미군정에 의해 조선총독부 청사는 캐피탈 홀(Capital Hall)이라 불리게 되었다. 중앙청(中央廳)이란 이름은 당시 학자였던 정인보(鄭寅普)가 캐피탈 홀을 직역하여 지은 것이다. 1948년 5월 10일에 중앙청 중앙홀에서 헌법 제정을 위한 역사적인 제헌 국회를 개회했고 그해 7월 17일 1층의 메인 홀에서 헌법공포식을 열고 헌법을 공포했다. 1948년 8월 15일에는 청사 앞뜰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이 거행되었다.

한국전쟁 1.4후퇴 후 서울을 재수복한 후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논의가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검토되었으나 전쟁 시기 모든 물자를 미국에 원조하고 있던 형편에서 철거할 능력도 철거된 건물의 잔해를 치울 능력도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없던 일이 되었다. 2공화국에는 공식청사로 사용되지 않다가 1962년 재개관되어 사용되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불붙은 철거논의는 1995년 3월 1일 오전 10시, 구 조선총독부 앞 광장에서 '광복 50주년 3.1절 기념 문화축제'를 열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옛 총독부 건물을 헐어낸다고 선포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정양모 국립중앙박물관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오늘 삼일절을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의 시발점으로 삼는다."라고 천명했다. 정양모 관장은 이어 8월 15일까지 철거 실측작업을 마친 뒤 광복절을 기해 총독부 건물 중앙돔의 철거를 끝낸 뒤 내년 초까지 철거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거기에 경북궁 복원 계획도 같이 천명했다.

1995년 8월 15일 광복절 오전 9시, 옛 총독부 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장에서 중앙돔 철거 분리에 앞서 주돈식 문화체육부 장관은 해방 50년 만에 이뤄지는 일제 상징의 제거를 호국영령들에게 고하는 고유문을 낭독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리 민족의 언어와 역사를 말살하고 거래의 생존까지 박탈했던 식민정책의 본산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여 암울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워 통일과 밝은 미래를 지향하는 정궁 복원작업과 새 문화거리 건설을 오늘부터 시작함을 엄숙히 고합니다.”**

철거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물들은 지하보관소로 옮겼다가 중앙청 바로 옆에 있는 구 국립중앙박물관 사회교육관 건물로 이전되었다. 이후 1996년 초부터 차근차근 압쇄 및 줄톱공법으로 절단해서 해체하는 과정을 통해 철거해 나가 그해 말에는 완전히 해체했다. 한편 잘린 철거물은 1995년 8월 말까지 구총독부 앞 마당에서 일반에게 공개되었다가 이후 독립기념관으로 옮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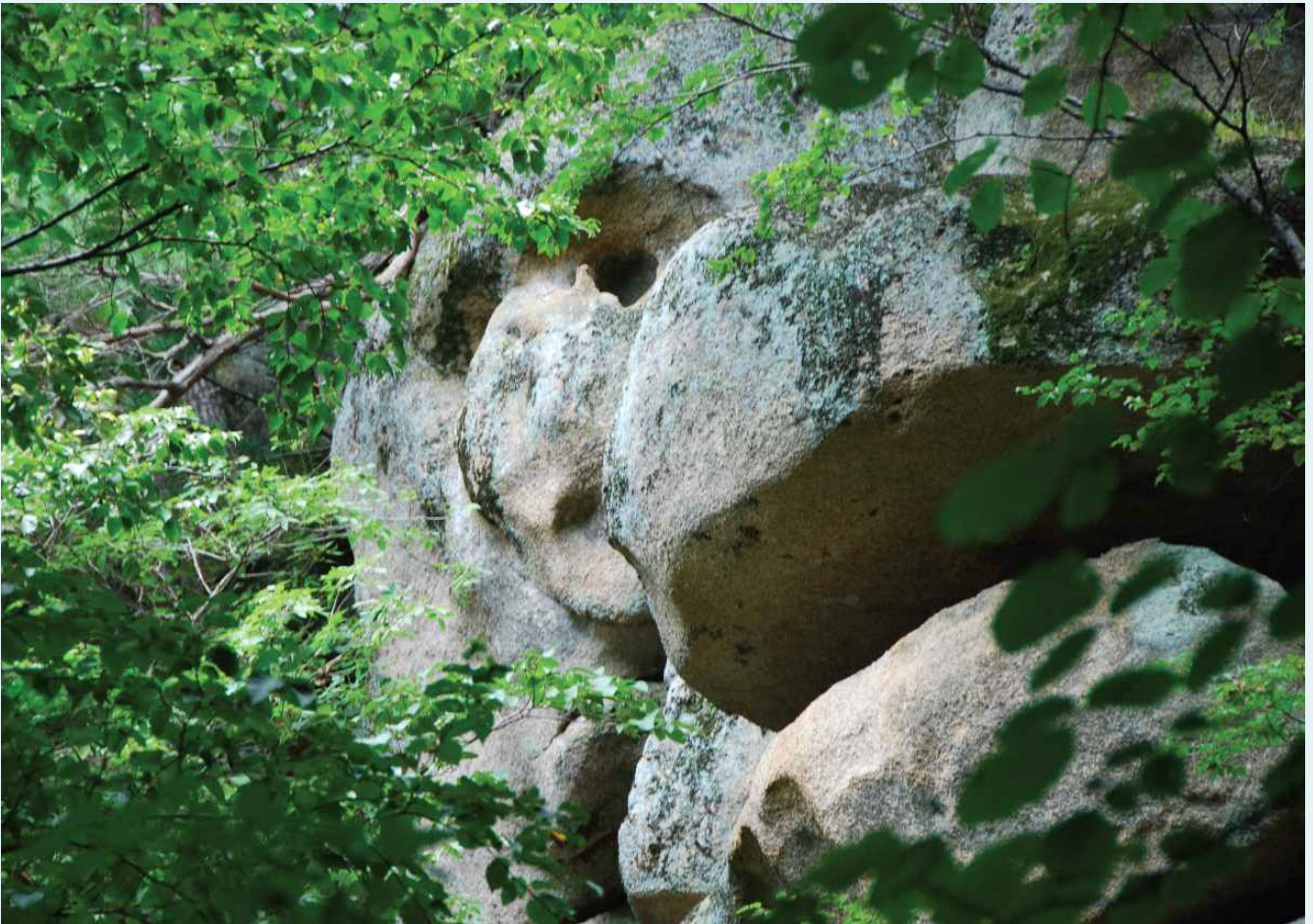
일찍이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을 통해 식민지배를 당한 경험이 현재의 우리를 만드는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실존적 역사의 누적된 힘으로 인식하자고” 주장한 대학 교수는 며칠 전 대학 강의 시간에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게 자발성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 적잖은 파문을 몰고 왔다. 그는 거듭된 해명 요구에 자신의 발언에 대한 해명 요구는 ‘내 발언은 나의 양심이자 학문의 자유’라고 강조했다.

1926년 10월 1일 경북궁 앞에 또아리를 틀었던 조선총독부 청사는 1996년 완전히 철거되었다. 예전 조선총독부 건물의 존치 여부와 관련한 논쟁은 접어두자. 그런데 조선총독부가 점령했던 35년의 역사는 여전히 완강하게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을 지우기 어려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 ■ 천년 암자에 오르다

새로 나는 속리산 상고암, 세 번째 이야기 - 원숭이 바위와 상고암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원숭이 바위** 이제는 삼장법사 대신 상고암을 찾는 탐방객들을 모셔야 할 손오공이다

경업대로 향하던 등산로가 다시 갈라지면서, 상고암을 안내하는 작은 표지판이 나타난다. 작은 다리를 건너면서 시작되는 이 셋길은 많이 가파르다. 험준한 바위들이 여기저기서 더욱 자주 얼굴을 드러낸다. 길가의 작은 봉우리들은 숫제 암벽으로만 이루어졌다.

숨이 차오르기 시작한다. 그만큼 경사도 급해졌으니 땀이 주룩 흘러내린다. 지금부터는 밖으로만 내댈던 발걸음을 내면으로 돌려야 한다. 두 발의 힘든 행보를 마음에 새겨야 한다. 세상의 멋진 비경은 늘 이렇게 고통과 인내를 먼저 요구하지 않던가?

중간에서 만나는 '원숭이바위'는 어렵고 힘든 산행에 큰 웃음을 준다. 길가의 표지판을 따라 왼쪽으로 몇 걸음을 옮기면, 작은 계곡 건너편에 많은 바위들이 제멋대로 쌓여 있는 광경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윗부분에 마치 원숭이처럼 생긴 바위 하나가 남몰래 숨었으니, 처음 와 본 사람들은 쉽게 찾을 수 없을 만큼 꼭꼭 숨었다.

근래에 발견된 이 바위는 '손오공바위'라고 불리기도 한다. 썩한 두 눈과 길쭉하고 두루뭉실한 코, 양쪽으로 늘어진 볼때기가 간데없는 원숭이다. 삼장법사가 아니라, 위쪽의 비로봉에 상주하는 비로자나불을 수행하던 손오공인지도 모른다. 지금은 무슨 업장 때문인지, 바위틈에 끼어 움짱달짝도 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언젠가 비로자나불이 내려와 용서해 줄 날만을 애타게 기다리는가?

원숭이바위를 지나도 여전히 가파른 등산로다. 험준한 바위들은 이제부터 석문이 되어 등장한다. 피안을 찾기 위해 수없이 열고 들어야 하는 석문들이다. 돌계단이 그 사이로 숨었다가 나타났다가 홀로 숨바꼭질을 한다.

숲을 보니, 수종樹種이 차츰 바뀌기 시작한다. 참나무, 상수리나무, 오리나무, 단풍나무, 생강나무, 물푸레나무, 층층나무 등이 주종을 이루는 잡목림 속에서 소나무가 자주 나타난다. 올망졸망한 조릿대는 길가에 우거졌다.

아름드리 소나무가 하늘을 찌르는 광경이 잦아질수록, 상고암은 자꾸 가까워진다. 그 옛날 법주사를 짓고자 하던 시절에 상고암은 목재 창고 역할을 하였다. 능선 주변에 짙게 솟은 소나무를 베어다가 잘 보관하고 말리면서, 큰 절의 공사에 알맞도록 먼저 손을 보았던 곳이다. 당시 목재 창고는 세 군데에 자리를 잡았다.

제일 위쪽에 자리 잡은 상고에다가 그 아래쪽으로 중고中庫, 하고下庫가 따로 있었다.



세 곳의 목재 창고는 당연히 법주사보다 시기적으로 몇 년 앞서 열렸다. 지금은 중고와 하고가 섰던 자리가 빈 채로 남았으니, 모두 100여 년 전에 사라졌다고 한다. 다만 버리기 아깝도록 뛰어난 상고의 자리는 마침내 상고암이란 암자로 거듭났다.

상고암은 서기 720년에 창건되었는데, 인근의 중사자암이나 탈골암과 거의 같은 시기다. 중간의 자세한 기록은 알 길이 없고, 다만 1876년부터 1896년 사이에 진봉스님이 중건했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다시 완전한 폐허로 변했고, 1975년에 주불전인 극락전을 세웠다.

상고암의 경내는 크게 동서를 가로지르는 축대를 중심으로 해서 상단과 하단으로 양분된다. 하단에는 요사채들이 차지했다. 상단에는 극락전을 중심으로, 좌측에 상고암이란 현액을 내건 종무소가 세워졌다. 우측 가까이에는 '거북바위'와 '용바위'가 포개져 있고, 그 앞으로 사천왕상이 새겨진 바윗돌이 버젓하다. 뒤쪽 한가운데에 영산전이 섰다.

상고암은 행주형(行舟形)의 빼어난 자리다. 앞쪽으로 파도처럼 일렁이는 산세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배의 형상이다. 비로봉 꼭대기에 솟은 하얀 바윗돌을 돛대 삼아 진리의 바다를 향해 돌진하는 배의 모습에 해당한다. 백두대간의 힘차고 넘치는 기세를 이어받았으니, 그야말로 거침이 없다. 밝고도 맑은 기운으로 충만한 터다. 수행자를 품고 길러 내기에 참말로 좋은 공간이다.

상고암 뒤에는 비로봉의 자태가 웅장하기 그지없다. 비로봉은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이 상주하는 봉우리이다. 비로자나불은 범어 Vairocana(바이로차나)의 음역으로, 부처님의 진신(眞身)을 나타내는 칭호다. 따라서 상고암은 부처님이 품은 숭고하고도 거룩한 암자다.

상고암의 주불전인 극락전이 경내의 한가운데를 차지했다. 왼쪽 뒤편으로 커다란 바위를 등졌다. 근래에 다시 지어진 까닭에 극락전은 고풍스런 맛이 별반 없다. 좌우측을 보면 대리석이 벽면의 절반을 채웠고, 주춧돌의 모양과 크기도 건물과 어울리질 않는다.

극락전 오른쪽 바위 무더기 틈에서 '삼타수'로 일컬어 왔던 샘이 솟는다. 샘물은 흙통을 따라 흘러내려 앞쪽에 놓인 수조를 채운다. 샘물도 꾸민다고 꾸몄는데, 웬지 어수선한 모양새로 고상한 품격을 찾을 수 없다.



상고암 극락전 무작위의 지고지순한 비로봉 아래를 상고암이 독차지했다

그러나 물맛만큼은 명성에 전혀 금이 가지 않으니 아주 탁월하다고 하겠다. 수량도 풍부해서 오가는 사람들의 목을 넉넉히 축여 준다. 극락전의 뒤쪽으로 두 줄기 계단이 놓였다. 왼쪽은 산신각을 거쳐 전망대로 오른다. 오른쪽 계단은 영산전에서 멈추었다. 산신각과 영산전 역시 초라하다는 느낌으로 뒤쪽의 비로봉을 올려다보면 더더욱 비교가 된다.

산신각 뒤쪽에 새로 조성된 전망대는 속리산의 정축을 조망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다. 그러나 너무 크고 멋없는 구조물로 전락하고 말았다. 주변 풍광과 제대로 어울리지 않는 살풍경한 시멘트 덩어리다. 작아도 맵시가 나는 전망대로 꾸몄다면 훨씬 좋았으리라는 생각을 떨치기가 어렵다.

상고암은 전체적으로 보아, 아직은 허술하고 정돈되지 않은 느낌이 앞선다. 이 깊은 산중의 꼭대기 암자에 아직 시절인연이 닿지 않은 탓이다. 그러나 천년의 역사와 목재 창고에서 암자로 거듭난 이력이 있지 않은가. 때가 되면 상고암은 단아하고 경건한 분위기의 암자로 또다시 일신하리라. 뛰어난 터에는 반드시 위대한 인물과 함께 빛을 발하는 시절이 찾아드는 법이다.

**다음 주는 새로 나는 <속리산 상고암> 네 번째 이야기 “용바위와 거북바위 그리고 마애불”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

## ■ 후원사업 안내

### ★ “닥터프란체스코 마유(馬油) 제품” 안내

우리 연구원 회원이며 독일에서 활동하는 김진경 회원이 독일현지에서 마유 원액을 직접 생산하여 한국 화장품업계에 공급하여 왔는데 우리 연구원의 운영을 돕고자 시중 보다 높은 함량의 마스크 팩을 생산하여 유통과정 없이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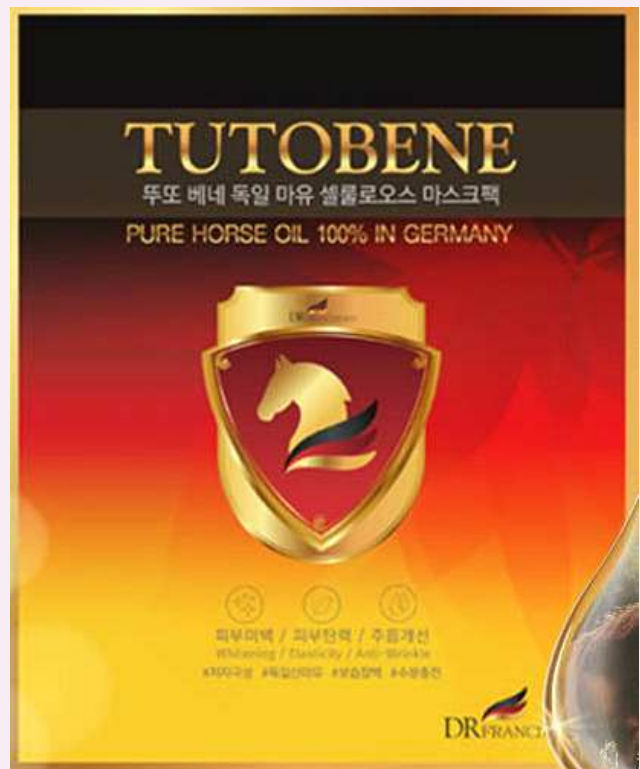
**마유는 그 어떤 원료보다 안정성 있게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며 아토피 피부나 피부 트러블에도 효과적입니다!**

#### ◎ 마유 팩 효능

- 피부 밸런스를 맞추어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 피부 노화 및 유해 환경(공해, 자외선, 담배연기 등)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줍니다.
- 눈에 띄게 맑고 빛나는 피부톤으로 가꿔주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 마유팩 25g \* 5매 >



< 마유팩 30g \* 5매 >

◇ 시 중 가 : 1만 5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1만 원

◇ 시 중 가 : 4만 5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2만 원

◎ **마유 샴푸 및 바디워시 효능**

- 가려움 예방 및 피부 각질제거
- 두피관리 및 머릿결에 영양 공급
- 피부 활력 및 보습진정 효과

◎ **마유 세럼 효능**

- 피부 수분 및 영양 공급
- 고운 피부결과 화사한 피부톤 지원



< 마유샴푸 및 마유 바디 워시 >



< 마유 세럼 >

◇ 시 중 가 : 2만 9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1만원

◇ 시 중 가 : 6만 9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3만원

◎ 시중가는 현재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나 연구원을 통해 구입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매 수익은 전액 연구원에 기부됩니다. 좋은 기운을 나누는데 사용하시는 기분 좋은 소비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